

自由城

<Jayusong(Freiburg)> 제 2 호

발행일 : 2011. 12. 20
 발행인 :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동문회
 Freiburger Alumni-Club Korea
 발행 및 편집 : 최종고

광릉 수목원 야유회

Ausflug nach dem Staatsaboretum

지난 4월 7일 우리 프라이부르크동창회는 경기도 광릉의 국립 수목원으로 야유회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동창이신 송영근 박사가 거의 평생 동안 근무하며 공헌한 곳이라 전부터 한번 방문하려고 별러 온 곳이다. 버스를 한대 대절해 사당동 지하철역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광릉 수목원에 이르니 송 박사와 해설자 일행이 기다리고 있다. 봄의 수목원의 경치가 절정에 이른 멋을 만끽하였다. 전나무 숲은 슈바르츠발트를 연상시키기도 하였다. 작년 여름의 태풍에 넘어진 나무들도 보였다. 열심히 사진도 찍고, 스케취를 하기도 하였다.

오후에는 이재창 교수 전원주택을 거쳐 봉선사를 관람하였다. 이곳은 운허 스님이 불경을 한글화하는 대작업을 하고, 춘원 이 광수(1892-1950) 선생이 머문 곳이기도 하다. 춘원 기념비에 서서 한국의 현대 문화사를 되새기며 기념촬영도 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목원 야유회는 작년 가을 유성 동학사 야유회와는 또 분위기가 다른 새로운 맛의 나들이였다고들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봄과 가을의 좋은 계절에는 이런 야유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들 하였다.바라는 것은 더욱 많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



강신호 회장님의 2011년

Ehrensator Dr. Shinho Kangs 2011

모교 프라이부르크대학교 Ehrensator이요 우리 동창회의 대부이신 강신호 회장님은 노익장으로 금년에도 눈부신 활동을 하셨다. 비서실에 그 일정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우리 동창회원들에게도 큰 모본과 격려가 될 것이다.

- 1월 12일 서울대 총동창회 신년 교례회 참석(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1월 24일 밥퍼나눔운동본부 찾아 봉사, 후원금 전달, 박카스 1,000병 기증
- 1월 26일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사업계획설명회 참석(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산업계 고문으로 재임 중)
- 2월 21일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찾아 ‘사랑의 쌀’ 320포 전달
- 3월 9~10일 ‘2011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참석(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 3월 22일 주한일본대사관 찾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 4억 원 전달
- 3월 30일 ‘IR52 장영실상 20주년 기념식’ 참석(국립과천과학관)
- 4월 18일 신연구소 준공식 참석
- 5월 2일 ‘밥퍼 자원봉사자 나눔축제’ 참석(서울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 5월 26일 UBE(宇部興産) 한국법인 설립 개소식 참석
- 5월 26일 동아제약 주최 사랑나눔바자회 참석(동아제약 신관 광장)
- 6월 16일 동아제약 제주사업소 준공식 참석
- 7월 1일 국토대장정 출정식 참석(부산 맥도 생태공원)
- 7월 1~5일 제28회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참석(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 7월 7일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사랑나눔바자회 성금 5,500여 만원 전달
- 7월 21일 ‘2011 미쓰비시다나베제약-동아제약 MR 미팅’ 참석(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7월 25일 ‘제6회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 참석(동아제약 신관 강당)
- 8월 9일 상해의약집단과의 자이데나 중국 내 판매계약 체결식 참석(상해의약그룹 본사)
- 9월 25일 ‘한일축제한마당 2011 in Seoul’ 참석(서울 시청 앞 광장)(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으로 재임 중)
- 10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서울대학교병원발전후원회장으로 재임 중)
- 11월 1~3일 한국경제신문 주최 ‘글로벌 인

재포럼 2011’ 참석(서울 광장동 웨라톤위커킬호텔)

- 11월 9일 주한터키대사관 찾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 11월 16일 제12회 한국메세나대회 참석, 문화경영상(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시상
- 12월 1일 동아제약 창립 제79주년 기념식, 제3호 신약 모티리톤 발매식 참석
- 12월 7일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동창회 참석(한정식당)
- 12월 15일 밥퍼나눔운동본부 찾아 봉사
- 12월 20일 서울의대 주최 ‘함춘 송년의 밤’ 참석(서울 장충동 엠베서더호텔)

이런 바쁜 일정 중에도 여름에는 사모님과 손자손녀와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오셨다.



<유럽여행 중에서의 즐거운 한 때>

이 재창 교수 본 동창회원 초대

Einladung der Alumni zum Prof. Lee

4월 7일 광릉 수목원으로 동창회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사시는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세계통계학회 회장인 이 재창 교수께서 우리 동창일행을 점심과 가든파티로 초

대하였다. 점심을 광릉의 명소 음식점에서 맛있게 먹고, 근처에 있는 이교수댁으로 갔다. 넓은 정원을 가진 전원주택에 영어학자인 부인 강영은 교수께서 직접 만든 각종 음식과 다과, 커피와 차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교수 내외는 프라이부르크동창은 아니지만, 홍영남 전 회장과 고교동창이며 김성수 전회장과는 고려대 동료교수였다. 그의 선친 이항녕(1915-2008) 전 홍익대 총장은 경성제대 출신으로 현재 서울법대 역사관에서 <이항녕의 법학세계>라는 유품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9월 15일-12월 15일). 이 전시회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최 종교회장에게 초청의사를 밝혀 이루어진 가연이다. 이곳에 초대된 우리 동창들은 전원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서 종일 머물자고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행선지인 봉선사로 향해야 했다. 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이곳을 <프라이부르크 동창회 별장>으로 하자고들 했다.



원로회원 광복록 교수 별세
Tod des Prof. Boknok Kwak

한국 독문학계의 최고 원로 광복록교수께서 지난 5월 26일 타계하셨다. 광교수는 일반적으로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

으신 것으로만 알려져있는데, 실은 그곳에 가기 전에 프라이부르크에서 반년간 체류하신 동창이시다. 그는 1916년 함남 함흥에서 태어나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로 유학하셨다. 거기서 1956년 독일로 <광복록(1916-2011)> 건너온 곳이 바로 프라이부르크였다. 광교수님은 만년에 최종교회장과의 인연이 깊어져 프라이부르크 동창회에 대해 많이 생각하시다 작고 하셨다. 감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세히는 후면 추모사 참조)



최종고 회장의 방독

Präsident Choi besucht Deutschland

최종고 회장은 지난 8월 13일에 독일 안나베르크(Annaberg)에서 둘째 딸 최정화양의 결혼식을 가졌다. 정화양은 최회장이 프라이부르크에서 유학할 때 태어나 귀국하여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독일로 유학하여 뷔르츠부르크대학을 거쳐 마르부르크재학에서 종교학 석사를 마치고, 금년 2월 라이프찌히대학에서 종교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위 짐머만(Henry Zimmermann)군 또한 같은 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동학이다. 결혼식은 독일에서 있었지만 축하해주신 프라이부르크 동창회원들에게 최회장은 감사한다.

이어서 8월 15-20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대학에서 열린 제25차 세계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IVR)에서 최 회장은 사회자 역할을 하고, 지난 8년간 맡아온 이사직을 종료하였다. 그는 기념으로 존경하는 독일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의 초상화를 그려 가지고 가서 전시하고 대회장인 노이만(Ulfrid Neumann) 교수에게 기증하였다. 이 대회에는 프라이부르크 동문인 박은정 교수도 참석하였다.



<안나베르크에서의 딸 혼례식기념>



<프라이부르크의 Caritas-Haus에서 최종고 그림>

곽복록 교수님을 추모하며

(In Memoriam Prof. Boknok Kwak, 1916-2011)

최 종고(회장, 서울법대 교수)

곽복록 교수님은 나와는 전공도 다르고 일찍 한국 독문학의 태두이시라는 존함만 들었지 인사를 드릴 기회도 없었다. 그러다 내가 운영하는 한국인물전기학회에 작년(2010)에 몇번 참석해 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곽교수님은 일반적으로 뷔르츠부르크대학 독문학 박사로 알려져있으나 말씀을 들으니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초기 동문이라는 사실도 알게되고 가깝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번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스칸디나비아 클럽으로 나가니 번역서 <괴테와의 대화>와 <파우스트>를 직접 싸인까지 하여 들고 오셔서 선물해주셨다. 나는 프라이부르크대학 500주년 기념문집 <한국과 프라이부르크(Freiburg und Korea)>와 시화집 <아름다워라 프라이부르크(So Schön ist Freiburg)>를 드렸다. 학창시절에 관한 회상, 특히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하와이를 거쳐 미국 시카고로 유학 갔다가 프라이부르크까지 오신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그때 1956년에 프라이부르크에서 유학생 이문호, 강신호, 고영주와 함께 슈바르츠발트 폴밭에 누워 찍은 사진이 <한국과 프라이부르크> 책에 실린 것을 보시고 무척 반가와 하셨다.

나는 얼마후 강신호 회장님을 뵈는 때 곽교수님이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말씀드렸다. 강회장님은 그러지않아도 오래만에 한번 식사라도 하고 싶었노라 하시며 날짜를 알아보라 하셨다. 그때는 겨울이라 봄이 되면 좋겠다고 곽교수님도 반가와하셨다.

금년은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었다. 4월이 되어도 춥고 고약했다. 4월 중순이 되어 강회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초파일의 지나 언제 만나면 좋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 곽교수님댁으로 전화하니 사모님이 받으시면서 위독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셨다. 고려대 구로 병원으로 달려가니 이미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머리의 통증을 괴로워하며 누워계셨다. 미국서 온 딸이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던 프라이부르크 동창회 최 종고 회장님이세요”하고 손을 흔들자 눈을 조금 뜨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의식불명이시다. 나는 왜 조금만 더 일찍 서두르지 못했나

자책되었다. 딸 정아, 인아씨는 아버지께서 내가 드린 프라이부르크에 관한 두 책을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셨다고 전해준다. 그 얘기를 들을수록 내가 좀 더 명민하지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

이 사실을 강회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직접 문병을 하시고 싶으나 의식불명상태이시라 대신 비서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알아보고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셨다. 끝내 두 분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생을 작별하였다. 나는 내 불찰을 뉘우치며, 한편 프라이부르크 대선배 동창들의 뜨거운 우정을 실감하였다.

병원에서 처음 뵈던 때 걱정하던 것보다 큰 한달 가까이 연명하셨다. 나는 한번 더 문병을 가 뵈었지만 끝내 5월 26일 운명하셨다. 빈소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나는 이런 조시를 하나 준비해 가져가 영전에 바쳤다.



〈프라이부르크에서 강신호, 이문호, 광복록, 고영주(시계방향)의 아름다웠던 유학시절(1956)〉

여기 또 아름다운 영혼이

- 가시는 郭 福祿 교수님께 -

괴테가 “Mehr Licht!”를 찾아
바이마르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듯

여기 또 한 아름다운 영혼이
한국에서 빛의 나라로 올라가신다.

북녘땅 함경도에서 태어나시어
일본, 미국, 독일에서 유학한 후

<파우스트>, <마의 산> 등
대작들을 한국어로 옮기시고

한국에 독문학의 씨앗을 뿌리신
선구자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신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분도 많으시리
괴테, 만, 헷세, 쾰바이크...

척박한 현대 한국 문화사를
풍요롭게 가꾼 아름다운 영혼이시여!

이제는 인생의忍苦 내려놓으시고
Wanderers-Nachtlid의 영원휴식 누리소서.

2011. 5. 30

6월 1일 서강대 성당에서 영결미사가 이른 아침 거행되었다. 내 조시를 서강대 한 여교수가 나와서 읽었다. 비가 심하게 내렸다. 우산 속에서 영구차에 실리는 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Auf Wiedersehen!” 고별인사를 올렸다.

며칠후 딸 인아씨가 내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 동안 고마웠노라며 인사를 하고는 갖고온 유고문서를 주고간다. 대부분 이미 발표한 글들의 스크랩북이지만 다시 읽어보니 고인의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이것을 정리하여 출판하면 아담한 책이 될 것 같다. 강회장님도 격려해주신다. 1주기가 작업할 예정이다. 프라이부르크 동창회의 잊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는 감회를 느낀다. 학자로서 그 많은 독어 원서를 번역하시며 조용히 한 평생 사신 대선배학자에게 새삼 존경과 동창애를 느낀다.

2011년도 송년모임 *Jahressitzung 2011*

2011년도 머무는 12월 7일 송년모임을 가졌다. 장소는 전에도 몇 번 모인 <한정식 궁>(전 해남 천일옥). 저녁 6시 반에 강신호 회장께서 선물까지 준비해 제일 먼저 도착하시고 차인석, 김지수 원로 회원들께서 도착, 우리 동창회의 열의를 실감케했다. 이날에는 특별한 손님과 새 회원도 있었다. 특별손님으로는 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하여 독일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아름다운 독일>(Schönes Deutschland) 이란 그림책을 내신 원로화가 김 정교수(송의여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면서 동생 남영자씨와 남양호씨를 보러 자주 프라이부르크에 오셨던 전 한국일보 특파원과 <구주신문> 발행인이셨던 남정호사장(현재는 뮌헨 거주). 김 교수님은 책선물 외에도 한국가요 <영영>을 독일어로 불러주셔서 갈채를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음악전공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브라이텐펠트(Roland Breitenfeld)교수가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을 졸업한 작곡가인 그는 2066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광야’라는 한국명이 적힌

명함을 돌려 친밀감을 더해주었고, 그의 이메일 역시 gwangya@snu.ac.kr 이다. 프라이부르크의 란트바서(Landwasser) 에 사는 부인도 플로트연주가로 한 학기에 몇주씩 서울대 음대를 방문하여 강의하고 돌아간다. 작곡가인 정수경교수(서울기독교대학)도 처음 참석하여 우리 동창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진행은 강신호 회장의 일년 회고와 새해의 건승을 비는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최종고 회장의 인사와 금년에 작고하신 광복록 원로회원의 명복을 빌었다. 광교수님의 유고를 모아 내년 1주기까지는 책으로 내자고 하였다. 이어서 돌아가며 인사와 회고담을 나누었다. 전 회장 김 지수교수님은 1960년 3월에 프라이부르크에 도착하여 독일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는 것이 가장 인상깊게 보였다고 하시며, 서울에서 정종욱 박사가 사시던 세운상가 아파트에 처음 목욕하러 오라 해서 갔던 애기 등 화제를 이어가셨다. 오랜만에 나오신 원로 철학자 차 인석 교수님은 1964년 10월에 프라이부르크에 도착하여 중고등 학생들이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더라고 하셨다. 최 종고 회장은 1975년말에 도착하여 가게들이 문을 닫아 먹거리를 살 수 없어

“유학 와서 배움아 죽겠구나”고 겁먹던 것이 놀램이었다고 하였다. 황적인 교수님(서울대)은 쾰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지만, 프라이부르크대 법대와 서울법대와의 자매결연을 맺게하는 데 수훈을 세우신 경위를 말씀해 주셨다.

도중에 전 회장 최경원 변호사(전 법무장관)께서 동문회를 위해 100만원을 찬조해주셔서 박수를 받았다. 김진환 변호사도 1차 다른 모임에서 빠져나와 늦게라도 참석해주셨다.

이날 새로운 회원으로 박정준 변호사는 프라이부르크 법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유망한 젊은 변호사이다. 서울에서 지난 10월에 결혼하였다. 이날 가장 총애를 받은 연소회원은 박영수교수의 아들 박은창군이였다. 이렇게 우리 동창회도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다 원로회원들의 무릎이 아파 일어서서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헤어졌다. 다음 모임은 내년 봄에 모임 예정이고, 그 때는 정기총회로서 새 회장단이 구성될 것이다.



<송년회 시작과 마침 두 번 기념촬영>

〈프라이부르크로부터의 소식〉
Nachrichten aus Freiburg

지난 10월 26일 동창회 이사회(Beiratssitzung Alumni Freiburg)모임에서 뵈메(Frau Böhme), 메트로(Meroth), 드라이어(Dreier), 스테브스(Staeves) 등의 이사들이 모여 내년 2012년에는 7월 6-8일에 국제동창만남(Internationales Alumni-Meeting)의 행사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한국동창회에서 여러분이 참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단체로 참가할 계획인데, 뜻이 있으신 분은 최종고 회장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바란다.

매년 여름 개최되는 국제동창만남은 모교의 최대행사로 한국동문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Prof. Dr. Chongko Choi aus Seoul/Südkorea (63 Jahre), Alumnus, hat 1979 an der Universität Freiburg in Jura promoviert

„Ich bin kurz vor dem Jahreswechsel 1975/76 in Freiburg angekommen. In der Woche nach Weihnachten musste ich in der Thomas-Morus-Burse in Littenweiler übernachten. Während dieser Zeit konnte ich nirgendwo einkaufen. Alle Geschäfte hatten geschlossen. Ich dachte, ich müsse verhungern. Für einen Koreaner, der in seiner Heimat jederzeit einkaufen konnte, waren die deutschen Öffnungszeiten eine große Überraschung.“



〈프라이부르크에서 발간하는 동창회지 uni alumni(2012)에 실린 최종고회장 기사〉

〈이진용교수 별세〉

Tod dss Prof. Jinyong Lee



(1937-2011)

본 회 회원이신 이 진용교수께서 지난 12월 18일 타계하셨습니다(74세). 이 교수는 1975-76년 프라이부르크에 연구교수로 와 계시면서 변영근 선생과 유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신 한국 산부인과학의 권위자이셨습니다. 장지는 파주동화묘원공원이고, 본회는 조화를 헌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본회는 조화를 헌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회원동정〉

Nachrichten der Alumni

▶ 최창무 대주교님은 광주대교구장직에서 은퇴하신 후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노안본당 안에 거소를 마련하여 편안히 살고계시다. 작년에는 미국 등지로 여행도 다녀오셨다. 송년모임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시지만 회원들에게 각별한 인사를 전해오셨다. 안부전화 한번 드리면 반가와하실 것이다(011 9600 9004 혹은 061 334 6004).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교수는 최근 아시아여성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산림학자 송영근 박사는 지난해 국립 수목원에서 정년퇴임하고 전남대학교 겸임교수로 임명되어 후진양성에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다.

▶ 법학자 신현윤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지난 10월 〈동아시아의 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주관하였다.

▶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락 박사는 최근 <Diaspora: Korean Nomadism> (Hollym / Seoul, 2011)이라는 영문저서를 출간하였다. 현대한국미술총서(Contemporary Korean art Series) 제2권에 해당하는 국판 160면에 이르는 본서는 20세기에 한국미술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한 업적을 작품과 함께 섭렵 소개하고 있다. 이용로, 김환기, 백남준 등의 선구적 업적과 새로운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미술로 전향하여 세계적 명성을 떨친 백남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서술하고 있어 본서는 프라이부르크 동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책이다.(구입문의 이메일은 info@hollym.co.kr)



▶ 프라이부르크대학 동문회 수입·지출 내역 ▶

<2011, 12, 20 현재>

• 수입:

-강 신호	5,000,000	-최 종고	3,000,000
-최 경원	1,000,000	-신 현윤	400,000
-김 지수	200,000	-박 순용	200,000
-송 영근	100,000	-홍 영남	200,000
-김 성수	100,000	-김 상용	100,000
-강 신호	100,000	-송 양호	100,000
-조 명삼	100,000	-성 선영	100,000
-김 진환	100,000	-채 문석	100,000
-황 적인	100,000	-김 효정	100,000

-이자 788

11,100,788(총수입)

• 지출: 동문회주소록발간

-동학사 버스대절	470,000
-운전수 팀	450,000
-동학사 입장료	50,000
-점심대	20,000
-변영근선생묘소방문조화	180,000
-<自由城> 1호 발간	50,000
-수목원 버스대절	680,000 (2011. 1. 12)
-운전수 팀	400,000 (2011. 5. 7)
-송년회식사대	50,000
-이진용교수 조화	807,300
	100,000

3,257,300(총지출)

* 본 회 회비는 1년에 10만원입니다. 통장번호 : 하나은행 241-910002-12305(Freiburg동창회)